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통과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성소수자(LGBTQ)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 행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우선 과제였습니다. 주정부는 제 임기 첫 해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으며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와 성별을 확정하지 않은 뉴욕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대범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사법 어젠다(Justice Agenda)의 일환으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혐오를 근본적으로 주 법에 명시한 이른바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인 성과를 더했습니다. 이 조치의 제정으로 주정부는 유해한 정당방위 전략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LGBTQ) 뉴욕 주민, 특히 유색 성전환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이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주정부는 그들의 편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보냅니다.

이는 모든 성소수자(LGBTQ)에게 중요한 승리이며 현대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이 시작된 스톤월(Stonewall) 항쟁 5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